『여원』 소재 서사만화 연구

장미영(전주대)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여원』에 실린 서사만화를 젠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후(戰後) 여성문화를 구성하는 특징적인 양상들이 한국의 근대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여원』은 여성의 문화의식 향상을 모토로 출발했던 월간 여성잡지로 1955년 10월의 창간호부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양한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여원』 소재 만화는 한 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캐리커춰(caricature)를 비롯하여, 네 칸짜리 짧은 그림 메시지인 카툰(cartoon)과 보통 열넷 혹은 열다섯 칸 정도의 이야기체로 된 서사만화(narrative comics)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서사만화는 작품의 수와 지면의 분량에 있어 캐리커춰나 카툰보다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잡지에 실린 만화 작품은 매달 두 편 이상, 평균적으로는 세·네 편, 많을 때는 일곱 편이 되기도 했다. 분량의 측면에서는 매달 10페이지 이상으로 잡지 지면의 2~5%를 차지하는 정도였다. 『여원』의 전체 지면이 182쪽이었던 초기에는 만화가 4~5페이지를 차지하다가, 286쪽으로 증면되었던 1956년 1월부터는 만화 또한 10~15페이지로 늘어났다.

만화 작가는 김용환, 김성환, 신동헌, 김경언, 심홍택, 조화사, 안의섭, 김봉천, 임창, 정운경, 이인수, 신동우, 탁성준, 동방사 등 주로 국내의 만화 전문 화백이었다. 가끔은 <海外의 漫畵>, <해외명작만화선>이라 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외국의 유명한 만화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여 이국적인 정취와 해외 풍속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공모를 통해 당선된 "독자의 만화"도 눈길을 끄는 수준작이었다.

만화의 주인공은 가정주부(<가정부인의 꿈>, <毛那古 여사>, <변덕부인>, <마담 릴리리>, <어머니의 일기>, <樂歌閑>, <제2공화국의 새 婦人像>, <깨소금 부인>, <賢妻傳>), 미혼 여성(<미쓰, 꾀꼬리>, <비비안 킴>, <미쓰 말띠>,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 <올드미쓰 매대기>, <마드모아젤, 뿌띠>, <미쓰, 론도>, <소라의 나날이>), 여고생(<여학생의 꿈>), 여대생(<여대생 민들레 양>), 직장 여성(<職業女性의 꿈>, <미스 호들갑>), 부부(<朝花夫婦>, <두꺼비 부부>, <꾸러미 夫妻>), 가족(<두꺼비 일가>, <고바우 일가>, <불경기판 미완성 공화국>, <女苑하이웨이>), 식모(<왈순 아지매>), 미혼 남성(<미스터 哲>), 기혼 남성(<꾸러미 君>), 소년(<깔끔이>, <집 없는 아이>) 등으로 여성 주인공이 압도적이다.

『여원』에 실린 서사만화는 주로 일정기간동안 매회 같은 캐릭터들이 나오지만 장면은 매 회마다 달라져 이야기가 바뀌는 연재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매 회의 장면들은 한 가지의 테마를 중심으로 캐릭터의 개성이 드러나면서도 희화화하는 화법으로 당대의 세태 반영과 함께 현실 비판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서사만화는 시각적 표상과 언어적 재현을 통해 일상적 삶 자체를 볼거리로 만들면서 동시에 당대의 사회적 실태를 말로 설명해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낳았다.

만화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언어와 이야기를 통한 창작예술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1] 이야기를 문자로만 기록하는 문학과 달리, 만화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시각예술이지만 문학의 가장 큰 장점인 상상력을 훼손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만화는 언어예술인 문학이 그런 것처럼 작품이 발산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다양한 독법이 가능한 매체이다. 동시에 만화는 문학보다 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말미암아 비교적 쉽게 대중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대중성은 이전 시대의 문학이 누렸던 장점과 동궤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사만화는 그 저변에 이야기(story)를 담보하면서 그림으로 이야기의 세부묘사와 배경을 명료화하는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만화 중에서도 비교적 더 문학성이 높은 장르이다.

우리가 보다 유연하고 더욱 폭넓은 문학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만화는 다양한 서사양식의 한 종류로 이해될 수 있다. 고전적인 장르 구분이 허물어지고 장르간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이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 문학연구자들은 지나치게 언어중심적인 편향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본고는 문학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욕을 실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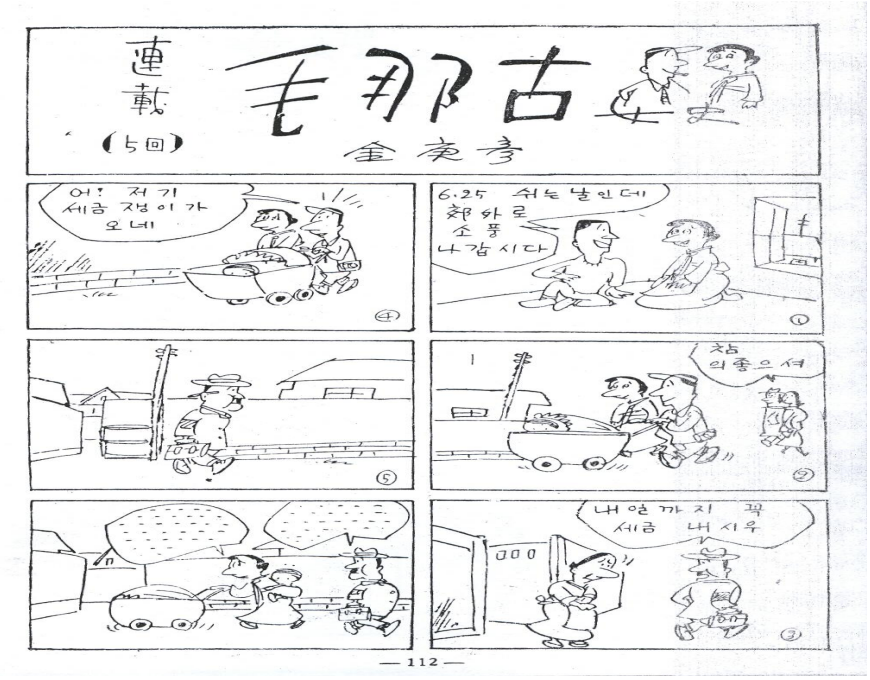
1) 임청산, "문학과 만화의 조성요소와 상관성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면.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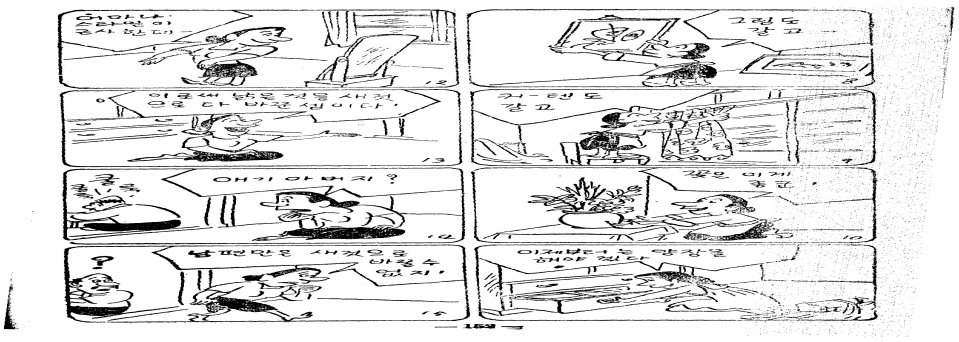
2. 도시적 여성 담론의 시각적 유형화

『여원』에 실린 서사만화는 대부분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이 압도적이다. 주인공이 가정주부든 미혼여성이든, 여학생이든, 직장여성이든, 만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주로 도시의 일상생활을 모델로 한 사실적 재현이 주류를 이룬다.

가정주부가 주인공인 <가정부인의 꿈>, <毛那古 여사>, <변덕부인>, <마담 릴리리>, <어머니의 일기>, <樂歌閑>, <제2공화국의 새 婦人像>, <깨소금 부인>, <賢妻傳> 등은 집안이 주요 서사 공간이다. 이미지로 재현된 집안 모습은 높은 시멘트나 판자 담장으로 둘러쳐진 단층 양옥집에 두 쪽으로 된 대문이 있고, 지붕에는 TV안테나가 솟아 있으며, 집 앞뒤에는 작은 마당이 있어 앞마당은 화초가 심어져 있고 뒷마당은 장독대가 놓여 있으며, 집 옆 구석 쪽으로는 긴 수도가 놓인 빨래터 겸 목욕통이 놓여 있는 풍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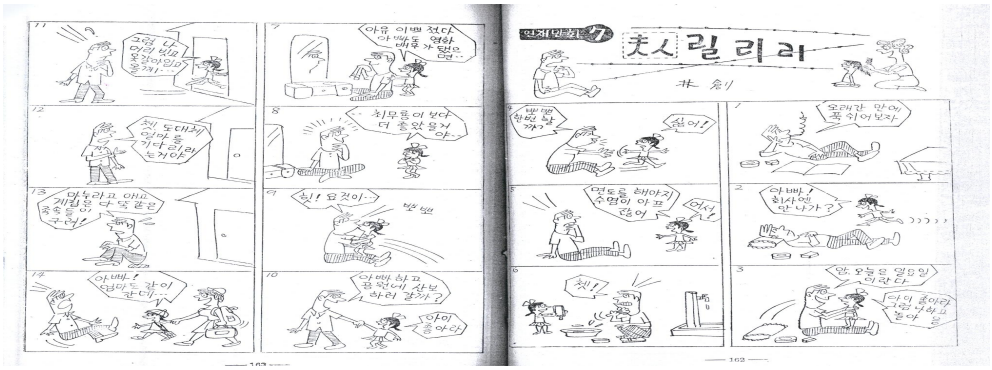


방안에는 장롱과 경대, 책상이 있고, 커튼이 쳐진 창문과 그림 액자나 벽시계, 달력이 걸린 벽, 화병이 놓인 탁자 등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경화되는 서사는 요리, 세탁, 집안 수리, 청소, 가구 배치, 집안 장식, 육아 등 집안일에 얽힌 이야기거나, 남편, 시부모, 아이, 친척 등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손님 접대, 취미생활, 여행 등 문화생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등 도시 중산층 내지 상류층 가정의 일상사에 국한되어 있다.



www.kci.go.kr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지출을 줄이고자 식모를 없애고 식구들이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모습(변덕부인),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가구의 위치를 바꾸고 커튼과 액자 그림을 갈아 끼우는 모습(변덕부인), 한복을 벗고 양장으로 스타일 바꾸기(변덕부인), 고급 미장원에서 미국 영화배우의 머리 스타일로 꾸미는 모습(변덕부인), 미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겪는 에피소드들(변덕부인), 취미생활로 테니스나 탁구, 골프를 즐기는 부부의 모습(모나고 여사), TV구입과 시청(모나고 여사), 우량아 대회 출전(모나고 여사), 꽃밭 손질(마담 릴리리), 헌 신문지 팔아 나들이 비용 마련하기(마담 릴리리), 혼분식을 실천하기 위해 보리밥을 짓는 부자집 주부(마담 릴리리), 늦동이 재롱(마담 릴리리), 휴일마다 가족끼리 나들이하기(마담 릴리리), 곗돈 부어 재산 늘리기(마담 릴리리), 버터로 비벼서 소스를 친 서양식 음식 만들기(마담 릴리리), 무역회사 타이피스트로 일하면서 남편 봉급의 두 배가 넘는 수입을 올리는 기혼 여성(마담 릴리리), 남편에게 용돈을 지불하며 가정 경제를 총관리하는 아내(마담 릴리리), 방문 판매하는 행상들에게 깍듯한 가정주부(마담 릴리리), 방갈로 가족 여행(마담 릴리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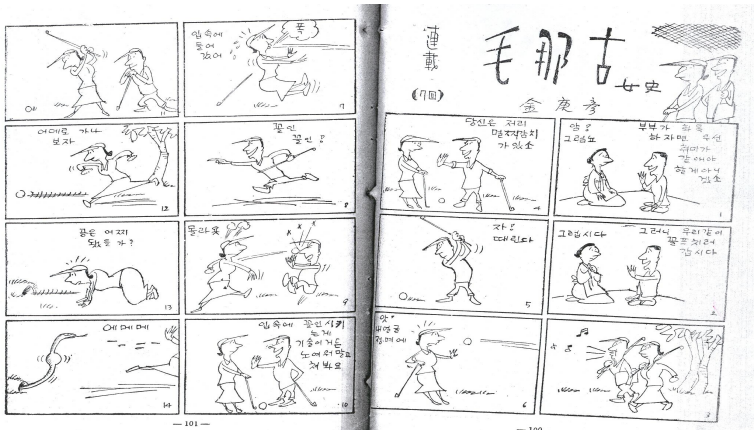


만화화된 도시 중상류층 가정주부의 일상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구경할만한 볼거리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성교양잡지를 표방했던 『여원』은 독자들에게 훔쳐보기식의 관음증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교양'있는 가정주부의 삶에 대한 표준적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 계몽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근대 사회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현상은 부부가 주인공인 <朝花夫婦>, <두꺼비 부부>, <꾸러미 夫妻>나, 한가족 전체가 주인공인 <두꺼비 일가>, <고바우 일가>, <불경기판 미완성 공화국>, <女苑하이웨이> 등에서도 나타난다. 병원에서 출산하는 아내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남편(고바우 일가), 아내에게 월급봉투를 내미는 남편(고바우일가), 이십 명 정도의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갈비를 준비하는 모습(고바우 일가), 부부 동반 극장 나들이(고바우 일가), 문화주택 가꾸기(미완성공화국), 부인전문학교를 다니는 가정주부(두꺼비 일가), 남편의 바람기를 슬기롭게 잠재우는 아내(두꺼비 일가) 등의 모습은 희화화되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주부를 다룬 만화와 마찬가지로 도시 가정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듯한 시각적 쾌락을 제공하면서 바람직한 가정생활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모델로 제공되고 있는 가정주부의 생활이나 가정생활의 면면은 전통적인 한국식 삶이라기보다 서구식 라이프스타일과 훨씬 더 닮아 있다. 커튼이며 수세식 양변기, 그림 액자, 가전제품 등 가정용품은 물론이려니와 부부동반 외출이며, 부부 취미생활, 외식, 주말 나들이, 방갈로 여행 등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도시 가정의 생활은 서구적 이미지와 더 많이 연계되어 있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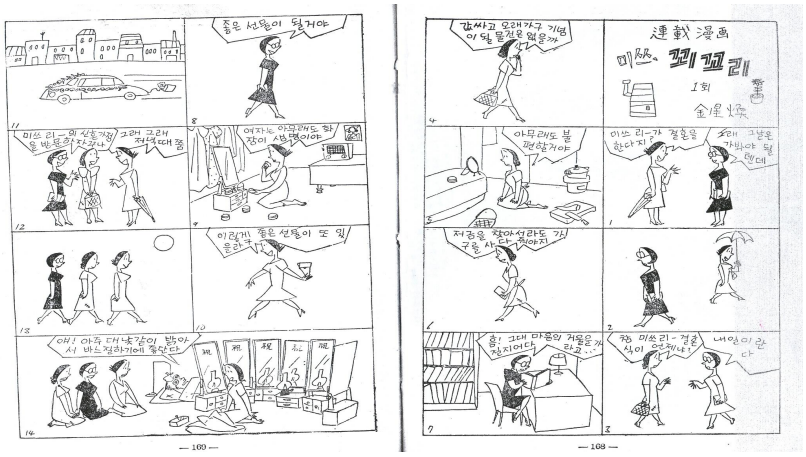
한편 미혼여성이 주인공인 <미쓰, 꾀꼬리>, <비비안 킴>, <미쓰 말띠>,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 <올드 미쓰 매대기>, <마드모아젤, 뿌띠>, <미쓰, 론도>, <소라의 나날이>, <여대생 민들레 양> 등은 신부수업 중인 도시의 젊은 여성들이 집안팎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포착하여 재현했다. 친구 결혼 선물 사기(미쓰 꾀꼬리), 파라솔과 구두 구입(미쓰 꾀꼬리), 테니스를 즐기는 아가씨(미스 꾀꼬리), 맞선 보기(미쓰 꾀꼬리), 바이올리니스트의 길거리 자선 공연(미쓰 론도), 영화 구경(미쓰 꾀꼬리), 소개팅(비비안 킴), 음악회 구경(미쓰 꾀꼬리), 야외 데이트(비비안 킴), 직장 구하기(미쓰 꾀꼬리), 친구들과의 소풍(비비안 킴), 성형과 화장(미쓰 론도), 미국 여성들에 대한 정보(비비안 킴), 독신 여교장과 여교수에 대한 단상(미쓰 론도), 미래의 꿈을 위한 사회적 역할 모델 탐색(민들레 양), 노처녀의 애환(미쓰 말띠) 등, 미혼여성의 일상은 산보자나 다름없다.

이들은 가사노동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부담도 없고 경제적으로 크게 구애받음도 없이 집안팎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중산층 가정 출신의 여성들이다. 이들의 동선은 도시가 제공하는 크고 작은 길거리의 풍경뿐만 아니라 극장, 박람회장, 연주회장, 클럽, 다방, 댄스홀, 책방, 레코드 가게, 옷가게, 화장품 가게, 구두 가게 등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공공장소의 풍경을 다채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도시의 사람들은 손이나 귀, 입보다 눈을 훨씬 많이 사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나타난다. 이들 만화 속 미혼 여성들은 친구의 연애 행각을 서로 지켜보거나 친구의 약혼식, 결혼식, 집들이를 통해 도시 사람들의 다양한 결혼생활을 살피는 관찰자 이다. 마찬가지로 미혼 여성들이 집안에서 마주치게 되는 가족들 또한 서로의 삶을 관찰하는 관찰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미혼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화는 당시의 여성문화를 말로 서술해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지닌다. 끊임없이 외모를 가꾸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결혼 배우자를 추구하는 미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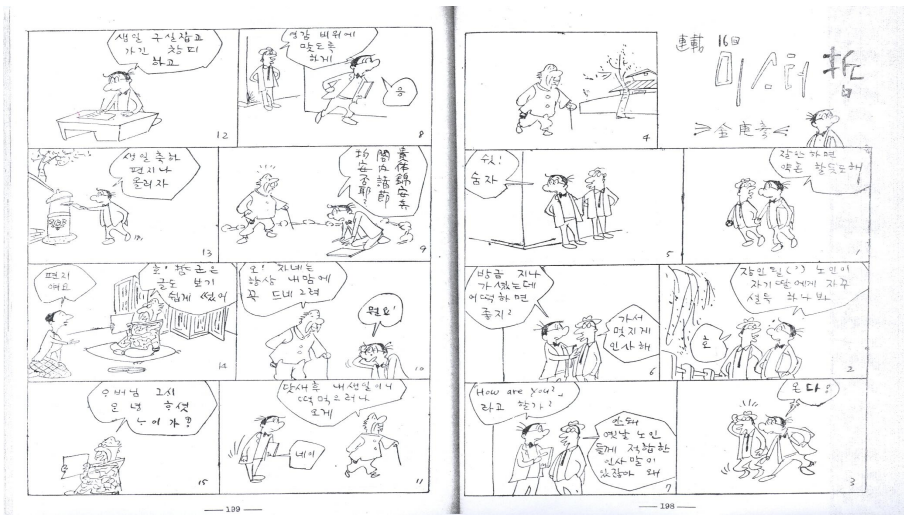
www.kci.go.kr

의 삶은 자본주의가 삶을 지배하는 도시생활의 표식이기도 하다. 당시의 미혼 여성들에게 현대적 삶은 도시의 삶이자 물질적 성취로 표현되는 부르조아의 삶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만화를 통해 볼 때 『여원』이 꿈꾸었던 모던한 생활양식은 시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재현적 실천에 지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다. 『여원』에 실린 서사만화의 재현 방식은 당대 여성 문화의 특성이 아니라 도시문화 자체의 구성 요소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만화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도시 공간을 생산과 노동이 아닌 유흥과 레저 중심의 유혹적인 소비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리즘의 역할을 담당했다.

미혼 남성이 주인공인 <미스터 哲>은 여성들이 궁금해할만한 미혼 남성의 생활과 여성관, 가치관 등을 소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 독자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하나였을 뿐, 내용면에 있어서는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서사만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는 그 자체로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유독 '시각'을 자극한다.[2] 이는 시골의 삶이 온갖 설화와 전설로 가득 찬 청각중심적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대도시일수록 시선을 끄는 볼거리가 많다. 이러한 볼거리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분히 시각중심적인 상호작용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소비적 삶을 영위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도시 사람은 시골 사람에 비해 시각적 자극에 민감한 아비투스를 몸에 익히게 된다.[3] 서사만화에 등장하는 대도

2) 바네사 R, 슈와르츠,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37면.

3) 바네사 R, 슈와르츠, 앞의 책, 39면.

www.kci.go.kr

시 서울의 풍경과 도시 여성들의 삶은 시각적 자극에 민감한 아비투스를 몸에 익힌 표상이자 『여원』이 추구했던 여성 교양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직업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만화는 가정주부나 여대생, 신부 수업 중인 미혼여성을 다룬 만화가 연재 형태로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 만큼 직업여성은 『여원』에서 만화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職業女性의 꿈>, <미스 호들갑>은 한 회 정도의 서사만화로, 가정주부나 여대생, 신부 수업하는 미혼여성의 삶과 판이하게 다르다. 이들은 외모부터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투박하게 묘사된다. 더구나 이들은 스팀 의자 하나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약삭빠르게 은폐하려는 경박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더구나 이들의 꿈은 같은 또래의 미혼 여성과 달리 '출근부에 도장이나 찍고', 돈만 많이 가져가는 허황한 것으로 폄하된다. 이러한 경향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에 대한 묘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교사, 여교수, 방송인 등으로 등장하는 직업여성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능력이 부각되기 보다는 화려한 사회적 직함은 선망의 대상이 되나 늙어서 초라하게 될 '독신'이라거나 여성적 매력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가정의 생계 책임자라는 전통적인 통념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장 독특한 캐릭터는 직업여성이자 가정주부인 <왈순 아지매> 이다. 서사만화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식모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 <왈순 아지매>는 <여원> 1958년 8월호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1964년 6월 대한일보를 거쳐 1975년 중앙일보에서 연재를 속개, 2002년 12월 24일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까지 무려 47년 동안 줄기차게 인기를 누렸던 장수 만화이다.[4] <왈순 아지매>는 전후 한국적인 상황이 탄생시킨 새로운 여성 직업으로 '식모'를 주목하면서 노비를 방불케 하는 과중한 가사노동과 열악한 노동 조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척박한 노동 환경 등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코믹하게 제시함으로써 도시 속의 소외 계층 여성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왈순 아지매>는 매회 중산층 생활을 영위하는 주인집 생활과 하층 계급인 식모의 생활을 연관지어 비교·대조함으로써 계층 의식이 그 사람의 성격과 세계관, 취미생활, 행복함을 느끼는 방식, 이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이와 같이 <여원>에 실린 서사만화는 사회계층별로 서로 다른 여성 삶을 부각시킴으로써 여성 경험의 이질적인 요소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여성 주인공 서사만화가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다원적 관점을 발견하는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삶의 환경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 때문에 여성 문제도 다원화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4) 주재국, 『만화책보다 더 재미있는 103가지 만화 이야기』, 계림, 2004, 156-157면.

www.kci.go.kr

3. 감정노동과 가사노동의 젠더화

서사만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그들의 복장과 머리 스타일에 따라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그들의 역할과 활동 상황이 확연히 구분된다. 몸을 써서 집안 살림을 주로 수행하는 여성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쪽 진 머리 스타일로 등장하거나 앞치마를 두른 복장을 하고 있다. 반면 마음 쓰는 일을 주로 하는 여성은 허리 라인이 분명하게 부각되는 서양식 원피스나 투피스 등을 입고 서양식 머리 스타일로 등장한다.

만화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육체노동은 주로 집안일로 한정되어 있되, 그러한 노동은 보상이 적을뿐더러 가치 있게 취급되지도 않는다. 특히 <왈순 아지매>를 통해 살필 수 있듯이 육체노동 위주의 집안일은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일로 성별 분업의 고정화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집안일은 여성들에게만 매일매일 끊임없이 강제되는 것으로 항상 남성의 바깥일과 대비되어 나타난다. 여성들이 집안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 노동의 형태로 그려져 있다. 만화에 나타나는 가사노동은 집안일만으로도 동상에 걸리고 몸살을 앓는 <왈순 아지매>처럼 '억척 아주머니'를 만들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한편 집안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집 가정주부나 미혼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마음을 써야 하는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감정은 언뜻 생각하기에 개인적이고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즉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만화에서는 감정도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인 구속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조절되거나 강제되는 노동의 일종으로 드러나고 있다.

<변덕 부인>, <어머니의 일기>, <왈순 아지매>, <모나고 여사>, <마담 릴리리> 등의 만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주부의 감정노동은 남성의 정신노동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남성의 정신노동은 사회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창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자발적이고도 개인적인 능력의 발휘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가정주부의 감정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개념으로 인식되지도 않으면서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휴식을 위해 부단히 마음을 쓰고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적 이데올로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주부의 감정 노동은 자발적이거나 창조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억압적인 사회 구조적인 강제 속에서 의무적으로 실천적 수행을 강요받는 여성만의 노동인 것이다. 이렇게 주부가 수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감정 노동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직업적인 업무 이외에 직장의 구성원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요청받는다.

www.kci.go.kr

직장에서의 감정노동은 사무실 미화작업, 차 접대, 사소한 상사의 심부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노동은 여성의 고유한 본성이자 여성 본연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로 간주되면서 직장에서 여직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이자 에티켓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보살핌, 배려, 순종, 친절, 애교, 부드러운 분위기 등의 용어로 환치되어 '여자는 애교가 있어야 한다'거나 '여직원은 회사의 꽃으로 항상 순종적이고 다소곳하며 친절해야 한다'는 식의 명령형의 형태로 강제된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만 요구되었던 감정노동은 육체노동 못지않게 사회 구조적인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수행되는 불평등한 관계의 패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5] 그러면서도 여성의 감정노동은 시장 경제의 영역 밖에 위치함으로써 돈으로 그 가치가 환산되거나 물적인 보상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여성 본연의 생래적인 임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이 소위 '식모'라고 하는 가족구성원 외의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을 때 금전적으로 환산되거나 '의식주(衣食住)'의 물적 형태로 보상되는 세태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이다.

5)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2000, 이화여대출판부, 14쪽.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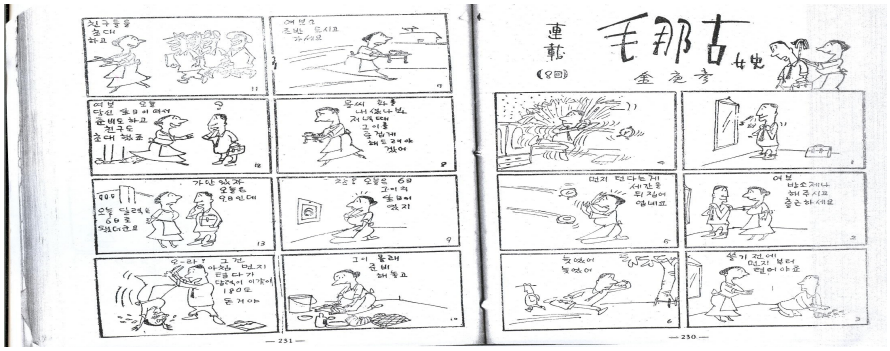
4. 훼손된 전통과 선망의 양풍

서사만화에서 설정하는 인물은 실재인물을 그대로 복사한 것은 아니지만 작가가 현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실재인물의 이미지인 경우가 많다. 그것이 작중에서 살아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작품 속의 다른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인간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이나 계층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누구나 그 집단 또는 계층을 대표하는 성격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만화 속의 인물은 그런 전형성을 띠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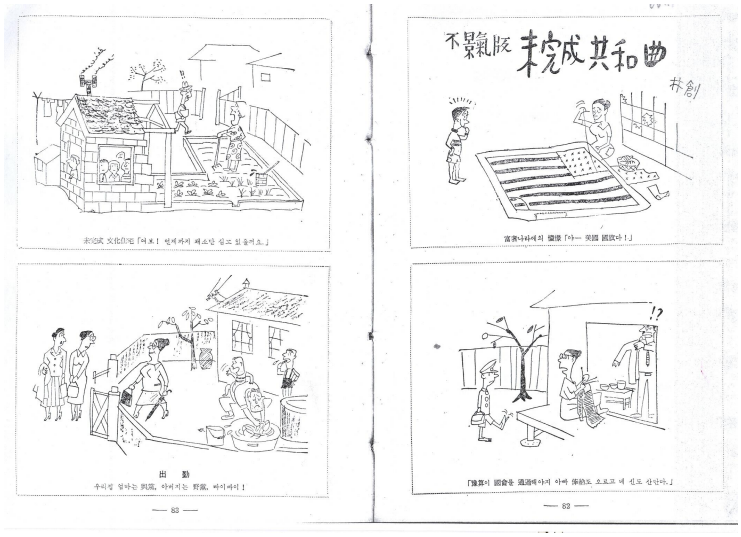
<여원>에 실린 서사만화에서는 얼굴이 크고 눈이 작고 코끝이 뭉툭하게 그려진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담은 얼굴을 하층계급의 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인물은 주로 억척스러우면서 세련되지 못한 식모, 행상인 등의 노동계층의 여성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고집하는 시어머니, 우직하게 가사노동만을 주로 하는 중년의 가정주부이다.

www.kci.go.kr

이들은 '육자배기'나 '아리랑'과 같은 민요를 부르고 '점쟁이'나 '농사일'을 좋아하고 '조선옷'을 평상복으로 입으며 입담이 좋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육체노동 위주의 삶을 영위하는 이러한 인물들은 전통적인 여성관으로 볼 때는, 부지런한 현모양처감으로서 모범적이라 불릴만한 여성상이다. <여원>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을 희화화함으로써 당대 사회에서 천대받거나 혹은 대접받지 못하는 구시대적 여성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여성 인물들은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을 담아내기 위한 반영체로서의 역할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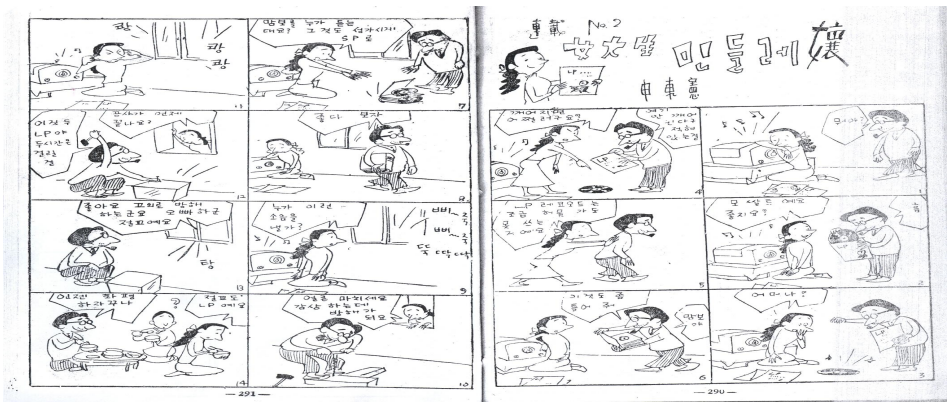


한편 <비비안 킴>, <미쓰 꾀꼬리>, <미쓰 론도>, <미쓰 말띠>, <여대생 민들레 양> 등에 등장하는 미혼 여성들은 서양 여성들처럼 얼굴이 작고 코가 뾰족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대부분 양장차림이며 핸드백과 하이힐, 파라솔, 모자 등이 잘 어울리는 몸맵씨가 좋은 여성들이다. 이들은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자신이 사회의 중심적 존재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인물들로 나타난다. 이들은 대개 아버지나 오빠,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헌신과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이나 물질 등을 떳떳하게 요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대신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당당함을 가진다. 이들 중 일부는 옆구리에 책을 끼고 다니는 화사한 옷차림의 여대생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일부는 집에서 착실히 신부수업을 하고 있는 중산층 집안의 딸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들은 물질적 여유 속에서 자신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소원이자 삶의 목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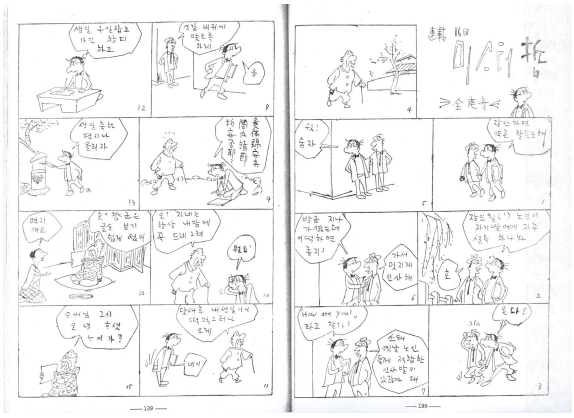
www.kci.go.kr

이들은 서양 음악인 이브 몽땅의 '화이트 X-마스' 음악을 취미로 듣고 서양 음악가인 베토벤, 바그너, 쇼팡, 모찰트, 헤리 젬스 등을 좋아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선물, 전축, 전축판, 타자기, 사교 댄스, 피서, 전축판, 음악회, 파티, 작품전, 악수문화, 비키니 수영복, 해수욕, 비치 파라솔, 냉장고 등 가전제품, 벽시계, 전화, 관람회장, 수세식 양변기, 드라이크리닝, 세탁소, 하이킹, 스포츠, 운동, 외상, 빨래세제, 월급, 맨손체조, 다방, 장바구니, 커피, 담배, 마가린, 택시, 방송국 노래자랑, 방청객, 소주, 마이크, 수도, 병원, X-레이 촬영, 테니스, 아르바이트, 결혼식장, 주례사, 패션쇼, 입장권, 악세서리, 배달 음식, 전기세탁기, 전기솥, 전기냉장고, 전기 스토브, TV, 외식, 술집, 애정 표현, 케이크, 캐러멜, 경품, 대매출, 바나나, 양복, 잠옷, 반찬가게, 은행, 물가 등의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상대적으로 코가 더 뾰족하고 눈이 더 크고, 속눈썹이 더 길고, 웨이브가 더 많이 진 머리스타일을 한 여성은 뭇여성과 남성들 모두에게 닮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 가진 것이 더 많은 부유층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서양 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여성 인물이 서양적인 이미지의 여성으로 그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 인물들도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낮거나 노동계급인 경우는 뭉툭한 코를 가진 한국 남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부유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남성은 뾰족한 코에 짧게 자른 머리 스타일의 서양적 이미지로 그려졌다.



이와 같은 서양적 이미지의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적 이미지의 인물들을 사회적 경쟁에서 뒤진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우리가 서양인에 대해 느꼈던 열등감의 소산이기도 하다.

www.kci.go.kr

한국인의 열등감은 서양에 대한 동경 못지않게 한국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자본주의적 경쟁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이름대로 자본이 많은 자가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 결과는 결국 물질적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는 믿음이 컸던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서양의 이미지를 추구했던 만화의 미학적 터치는 자본주의적 경쟁에서의 성공 모델을 서구의 물질적 풍요함과 화려함에서 찾은 당대 사회의 집단적 믿음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여원> 소재 서사만화는 서양적 이미지의 인물뿐만 아니라 문화주택, 문화생활 등의 이름으로 서양식 라이프스타일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밝고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게 된 것이다.

<주제어>

서사만화, 전후여성문화, 여성잡지, 감정노동, 육체노동, 정신노동, 서양식 라이프스타일

<참고 문헌>

김영주, 『시사잡지와 잡지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006.
김용락·김미림, 『서사만화 개론』, 범우사, 1999.
더글러스 다우드 외, 류동민 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필맥, 200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근대, 근대성, 근대문화』, 월인, 2005.
바네사 R. 슈와르츠,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박기현, 『한국의 잡지출판』, 늘푸른소나무, 2003.
손상익, 『한국만화사 산책』, 살림, 2005.
여원사, 『여원』, 1955. 5월호~1970. 4월호.
이수진, 『만화기호학』, 씨앤씨 레볼루션, 2004.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2004.
이진경 편저, 『모더니티의 지층들』, 그린비, 2007.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이효덕,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임청산, “문학과 만화의 조성요소와 상관성 연구”, 대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05.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주재국, 『만화책보다 더 재미있는 103가지 만화 이야기』, 계림, 2004.
한국예술연구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II, 시공아트, 2005.

www.kci.go.kr

<Abstracts>

A study on the narrative comics in "YeoWon"

by Jang, Mi-young(Chonju Univ.)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narrative comics in the female magazine, "YoeWon" in the gender's point of view and to investigate how the characteristics of post-war female culture is related with the Korean modern style. Cartoon and literature have in common in a way that they are both recognized as creative arts through language and story.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literature which writes a story by words and cartoon which picturizes the story thereby keeps the imagination unharmed.

If we have more flexible and more extended point of view on the literature, cartoons can be recognized as one of various forms of narratives. Considering today's situation that the division of classical genre and the border of genre is demolished, it is necessary to escape from language-oriented bias existing in the literature researchers.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possiblity of the said actions by performing the desire of expanding the territory of the object of the literature study.

The object of this study, "YeoWon" is a female magazine with the motto of "advancement of the cultural thought of women" which started to include various cartoons from Oct. 1955, the very beginning of the magazine. Most main characters are women such as a housewife, single female, high school girls, university students, working woman, married couple and maidservants. Narrative comics have the same character in every series even though the story goes differently all the time. Every scenes reflect the current life and approach the criticizm of realization by using the narrative method of exposing the character's personality and also of making a caricature.

The roles and activities of female main characters in the narrative comics are divided into emotional work and physical work by their clothes and hair styles. A woman who is working physically at home wears white traditional jacket and black skirt with hair in a chignon or with an apron, on the other hand, a woman who is working emotionally wears a western style one-piece dress or two-piece dress with western style hair.

Women's physical works in the cartoons are limited to home work with little compensation and treated as worthless. In particular, like a housemaid cartoon 'Aunt Walsun', the house work strongly related to physical labor is regarded as women's work only and this idea results in the distinction of sex in the labor. House work is always given to women only in comparison with outside work which is treated as men's work. Cartoons show that to do the house work properly is too heavy to keep women's health. The cartoons ascertain the house work to be a very heavy physical work as we see in the 'Aunt Walsun' and make the female character a tough woman.

On the contrary, a rich housewife or a single woman is described as a person who has to do the emotional work even though she is free from house work. Emotion can be regarded as personal, natural and voluntary rather than compulsory, but the cartoons express emotion as a kind of socially forced work.

House wife's emotional labor is differentiated from man's mental work. The latter is recognized as the expression of individual ability in order to achieve the social work. However, the former is regarded as non-labor just focusing on consideration and care for the family members' rest which is also derived from collective ideology. That is, house wife's emotional labor has to be done from a mere sense of duty under the

www.kci.go.kr

social structural force not by the voluntary or creative choice.

Emotional labor at a workplace is done in the form of office cleaning, coffee serving, an erand etc. This emotional labor is regarded as women's own nature and even promoted as an etiquette of female officer. The meaning of emotional labor becomes equivalent to the meaning of care, consideration, obedience, kindness, winsomeness, softness etc and makes the expressions such as 'a woman should be winsome' or 'female officer has to be a flower in the company with obeying and kind nature'. However their emotional labor is placed out of market economy which means no need to be regarded as worth or no need of compensation. This idea is quite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of a 'house maid' in a way that the labor done by the 'house maid' is easily converted into money or other types of compensation.

The narrative cartoons in 'YeoWon' mainly express lower class of woman or old woman with a big face, small eyes and flat nose. The image of Korean women is tough and unpolished housemaid, peddler, worker, out of dated mother-in-law, middle aged house wife.

On the contrary, unmarried women are described as western style with a small face and a long nose. They are mainly wearing western style clothes and take a handbag, high heeled shoes, parasol, hats as they look good. They are well-educated female with self-confidence that they are the center of the society and with a dream of future happiness. They have relatively longer nose, bigger eyes, longer eyelashes and curled hair and these characteristics becomes an object of envy. Namely, the richer you are, the more western image you have.

Male image also has the same principle as female image. In case of male characters, older, lower class or labor class seems have a flat nose, on the other, richer, higher class is described western style with a higher nose .

Such a western image made Korean style image inferior by the idea of losing the competition in the society. This is also the result of inferiority that we felt at that time. Jeopardizing Korean traditional image and preferring western image in the cartoons are because we were looking for physical richness and brightness in the western countries. That's why the narrative cartoons in 'YeoWon' have described the pursuit of western life style as bright and beautiful.

<Key Words>

Narrative comics, post-war female culture, female magazine, emotional work, physical work, mental work, western life style

www.kci.go.kr